

【 2016.1.8(금) 강원일보 】

◇오인철 대한건설협회도회장



은 8일 오전 11시
홍천 K컨벤션웨
딩홀에서 회원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인사

회를 개최.

【 2016.1.8(금) 강원도민일보 】

알립니다

2016 강원경제인대회 및 신년인사회



강원도민일보는 강원도, 중소기업
중앙회 강원지역본부와 함께 강원경
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 인사를
나누고, 새로운 희망을 찾는 '중소기
업 활성화'를 위한 2016 강원경제인대
회 및 신년인사회'를 개최합니다. 올
해는 김광희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

구위원을 초청, 중소기업 미래에 대한 전망과 대책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
다. 강원경제인대회가 강원경제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다짐하는 뜻깊은 행
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가 부탁드립니다.

- 일시: 1월 20일(수) 오전 11시 ■ 장소: 호텔인터불고원주 1층 컨벤션홀
- 행사 내용: - 특강: 김광희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축하공연 및 동계올림픽 홍보 영상
- 행사 안내 및 참석 문의: 강원도민일보사 전략사업국(260-9310),
편집국 경제팀(260-9230), 영서본부(746-8002)
- 참가비: 없음 ■ 주최: 강원도·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강원도민일보



◇오인철 대한건
설협회 도회장은
8일 오전 11시 홍
천 K컨벤션웨딩
홀에서 도내 회
원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인사회를 개
최한다.

【 2016.1.8(금) 건설경제 】

건설 강원도회. 오늘 흥천서 신년인사회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회장 오인철)는 8일 오전 11시 강원도 흥천 K컨벤션웨딩홀에서 회원사 대표를 이 참석한 가운데 '2016 신년 인사 회를 개최한다. 오인철 강원도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회원들과 덕담을 나누는 뒤 올해 지역건설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건설산업, 힘찬 도약의 해 되기를”

2016 건설인 신년인사회 열려

건설



최삼규 회장 “해외건설 신흥시장 개척 박차”
황교안 총리 “인프라펀드 조성 등 적극 지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최삼규)는 새해를 맞아 7일 오후 5시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16 건설인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해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김동철 의원, 김태원 의원, 이종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 이재영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건설단체장과 유관기관장 등 건설인 10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행사장에 모인 건설인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새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힘차게 전진하자고 덕담을 건네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최삼규 회장은 신년사에서 “새해에는 모든 건설인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우리 경제와 건설산업이 새로운 기운을

받아 힘차게 도약하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외의 급변하는 시장상황에 맞추어 경영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고 해외건설 진출은 고부가가치 기술 개발과 사업다각화로 중동 산유국 이외의 신흥시장 개척에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신년인사를 통해 “지구촌 곳곳에서 대한민국 건설의 위상을 드높여온 건설인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면서 “FTA 확대로 건설산업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또 “신수요 창출과 신기술 개발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FTA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힘써줄 것을 당부한다”며 “정부도 코리아 해외인프라 펀드 조성 등 건설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정석기자 jskim@

2016년 1월 8일 금요일 제15076호

cnews.co.kr

건설인 신년인사회

2016. 01. 07(목)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2016 건설인 신년인사회 개최 7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6 건설인 신년 인사회'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축하 떡을 자르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최삼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과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해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신홍균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 김동철·김태원 국회의원, 이종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이재영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등 건설인, 정·관계인사 1000여명이 참석했다. ▶관련기사 11면 안윤수기자 ays77@

【 2016.1.8(금) 건설경제 】

건설 전문가 상담코너

- Q**
1. 대표이사 가수금이 실질부채로 인정되는지?
 2. 회사 명의 중소형 승용차는 실질자산으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A

1. 대표이사 가수금부채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실질 부채로 간주됩니다. 다만 가수금부채는 대표이사 가 지급금과 상계할 수는 있으며, 겸업자산의 취득을 위해 가수금이 사용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겸업부채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2. 회사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거나 또는 회사의 재산이 아니라는 특별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실

질자산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면, 세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기업진단에서는 취득한 월부터 진단기준일까지 감가상각을 한 이후 금액만 실질자산으로 인정합니다.

이종현 태성회계법인 회계사
건설 회계상담 전문위원



제공 : 대한건설협회·상담신청 : 02-3485-8305, www.cak.or.kr



평창올림픽 특수 벌써 끝났나

지역건설사 공공수주 3년전 수준으로 후퇴

지난해 1.3조...9%가량 줄어 지역제한 대상 공사 확대 등 올림픽 이후 대비책 마련돼야

강원 지역업체들의 수주실적이 3년 전으로 되돌아 갔다. 올림픽 특수가 끝난 것이 아니냐는 분석과 더불어 지역업체의 수주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가 잠정 집계한 '2015년도 강원 지역업체 공공공사 수주 현황'에 따르면 강원 지역업체들은 지난해 모두 2152건, 1조2984억원의 수주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2017건, 1조2710억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2014년(2024건, 1조4286억원) 대비 수주 건수는 6.17% 줄어 난 반면 수주 금액으로는 9.11% 정도 줄어 든 수치다. 수주 금액만 따지면 최근 10년 동안 5번째에 해당한다.

강원 지역업체의 공공 수주고는 2010년 1조5459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부침을 겪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시설공사가 본격적으로 발주된 2013년(2645건, 1조4666억원)과 2014년 2년 연속으로 1조4000억원대에 안착했다.

이에 따라 올림픽 특수가 끝난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건설 강원도

회 관계자는 "빙상장 및 아이스하키장, 중봉 알파인 경기장 등 대부분 경기장의 발주가 끝났다. 원주~강릉 철도 등 올림픽 개최에 맞춰 추진된 대형 토목공사도 마무리되고 있다"면서 "경기장 진입도로 잔여분 및 소규모 인접도로가 올해 입찰공고될 예정이지만 큰 기대는 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지역의무 공동도급이나 지역제한 공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강원도는 이미 지역건설업체의 참여 확대를 위해 각종 공사 발주 시 입찰공고에 지역업체 공동도급 49%, 하도급 50% 이상을 명기하도록 권고하고, 국제입찰 대상 및 지역제한 대상 공사의 공구별 분할발주 검토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말 그대로 권고인데다, 공사의 특성상 공구별 분할발주가 힘든 경우가 많아 실효성을 충분히 갖기는 힘들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발주처는 국가 계약법상 어쩔 수 없다는 식이지만, 발주처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지역업체를 우대하는 방식으로 발주가 가능하다"면서 "강원도 역시 올림픽 이후를 대비해 공공 먹거리 창출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희훈기자 hoony@